셰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5 Winter Vol.43

In Schaeffler

page 08 **셰플러가 만난 사람**
Health Mentor 송다은

For Life

page 32 **패밀리가 떴다**
아쿠아리움에서 만나는 바다 속 세상 겨울 바다를 가다

To Communicate

page 45 **〈셰플러+원〉 10주년, 축하합니다**
한 눈에 알아보는 사보 연대기와 10년 축하메시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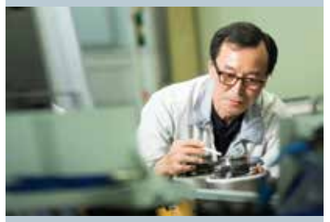
Cover Caption

이번 '따뜻한 시선'에서는 셰플러코리아 임직원과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연탄봉사에 나섰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봉사자들 모두의 얼굴에는 포근한 웃음이 맺혔습니다.

발행일 2016년 1월 15일(통권 제43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박영곤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 · 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GE 08 : 셰플러가 만난 사람
헬스 멘토 송다은이 전하는 건강한 이야기



PAGE 12 : 셰플러, Best of the best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두호 기술명장이
말하는 좋은 습관

PAGE 20 : 글로벌 셰플러
서울사무소 Mr. Gabriel, Loureiro와
고광우 사원이 체험하는 한국 전통문화

PAGE 24 :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래의 동행,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와
협력사 포스코와의 만남

PAGE 28 : 해피투게더
서울사무소 볼링동호회 '동그리'

Cover Story

04 일상 속의 셰플러
셰플러와 함께 추억을 새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In Schaeffler

06 신년사

08 셰플러가 만난 사람
건강전도사, 마음까지 건강한 한 해 맞이하기
헬스 멘토 송다은

12 셰플러, Best of the best
자신을 갈고 닦는 좋은 습관이
최고를 향한 첫걸음

14 당신을 생각합니다
20년 삶의 동반자에게 보내는 깜짝 선물

16 체험 1박2일
서킷 위에 미끄러지듯 불꽃 튀는
스피드를 즐겨라!

20 글로벌 셰플러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색색의 한국 전통문화

24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협력사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

26 Mobility for tomorrow
2015 도쿄 모터쇼를 가다

28 해피투게더
화끈하게 강력하게, 퍼펙트 스트라이크

셰플러+원

2015 WINTER Vol.43

셰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32 : 패밀리가 떴다
테이퍼 롤러 세그먼트 강호성 주임
가족과 함께하는 물고기 세상

PAGE 40 : 셰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손용훈 사원이 전하는
따뜻한 사랑이야기

PAGE 42 : 영화 속 과학이야기
영화 같은 현실의 생체 인증 세계

PAGE 48 : 따뜻한 시선
따뜻함이 가득 찬 EVERGREEN(서울)의
연탄봉사

PAGE 50 : 셰플러 동행취재
고운 한복 차려입고 김장하던 날

For Life

32 패밀리가 떴다
아쿠아리움에서 만나는 바닷속 세상,
겨울 바다를 가다

36 Law school of Schaeffler
유실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했고,
이후에 천국을 만들었다

40 셰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솔로는 100%, 커플은 120% 공감하는
진짜 사랑이야기
연극 〈러브액츄얼리2〉

42 영화 속 과학이야기
'내 몸이 열쇠' 생체 인식 기술이 뜬다

To Communicate

45 〈셰플러+원〉 1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 메시지
한 눈에 알아보는 사보 연대기

48 따뜻한 시선
소외된 이웃의 겨울,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녹다

50 셰플러 동행취재

52 Schaeffler FOCUS

54 Schaeffler NEWS

59 Schaeffler Hotline

동심의 세계로 함께 떠나지 않으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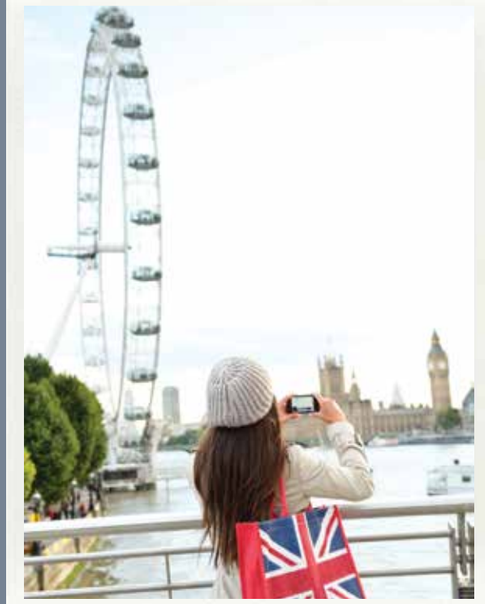
셰플러와 함께 추억을 새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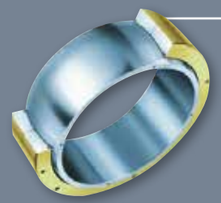
낮은 도시에 우뚝 솟은 동화의 입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거대한 장난감 앞에서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객입니다.
하늘 끝을 찍고 내려와 손을 내미는 대관람차는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호박마차가 됩니다.

설레는 마음과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서 멀어져 하늘로 실려 갑니다.
하늘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점점 넓어지는 풍경의 낯선 모습을 눈에 품습니다.
그 아찔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기적.
매일 돌아가는 하루를
둥글고 따스하게 만드는 마법.
사랑하는 사람과 만들어가는 추억의 한 페이지.
그 모든 곳에 대관람차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낮은 도시 속 불을 빛내는 랜드마크처럼
현실이라는 거센 풍파로부터 동심을 밝히는 기술,
셰플러가 함께 합니다.





ELGES 스페리컬 플레인 베어링

일반적인 베어링은 외륜, 내륜과 전동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플레인 베어링은 전동체 대신 슬라이딩 레이어가 들어가 외륜, 내륜과 슬라이딩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셰플러에서 생산하는 ELGES 스페리컬 플레인 베어링은 높이 13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인 영국 런던의 '런던 아이(London Eye)'의 지지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인 베어링은 롤링 베어링보다 훨씬 큰 하중 지지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뻣뻣한 강구조(Steel structure)에 거센 강풍이 몰아치는 경우, 좌우로 틸팅(Tilting)이 발생하게 유도함으로써 얼라인먼트(Alignment)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런던 아이 이외에도 최근 늘어가고 있는 4D 영화관에서 영화의 생동감을 전달해주는 4D용 의자에도 셰플러의 플레인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풍요롭고 건강한 회사,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셰플러코리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셰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셰플러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병찬 입니다. 저는 1991년 한국종합기계에 입사하여 25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회사를 위하여 살아왔고 또 살아갈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제가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지난 며칠 밤을 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의 힘이 돼주셨던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2016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셰플러코리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한마디로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지켜주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재원을 스스로의 역량으로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저 부가가치 사업에서 고 부가가치 사업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배분을 적절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회사는 축적된 경제적 역량을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곳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누어 모두가 풍요롭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건강한 셰플러코리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회사는 고객, 종업원, 주주 모두 함께 지나온 역사를 존중하고 오늘에 집중하며 다가올 미래에 더 큰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구성원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규정과 규범, 법과 윤리가 준수되어 모두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기꺼이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갖춤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해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과거와 현재의 진실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를 개선해 가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계층 간 기능 간의 순환을 통하여 항상 신선함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회사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나 조직은 그 성과의 다과를 떠나서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강조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한 기업으로의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중심 경영, 윤리 경영, 준법 경영, 책임 경영, 새로운 경영 프로세스 도입, 직무 순환 및 재조정, 연공서열의 재해석, 성과 중심의 평가와 보상,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회확대, 전문기술과 경험의 존중** 등의 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셰플러인 모두가 존엄한 셰플러코리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성원이 존엄한 회사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사회적 절대 가치가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구성원이 존엄한 회사는 종업원, 경영자, 사주 모두가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회사입니다.
구성원이 존엄한 회사는 구성원 스스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구성원이 존엄한 회사는 자발적인 희생으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장되고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써 회사의 영속과 번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향한 영원한 저의 믿음과 도전이 셰플러코리아 전 임직원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되어 줄 것이며, 혼란 속의 질서를 제공해 줄 것이며, 절망 속에 희망을 줄 것이며, 나태함의 채찍이 되어 줄 것이며, 성공을 향한 진정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취임에 즈음하여 저의 작은 결의의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올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끝으로 신년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약 4백억 원정도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성 가능한 매출을 예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조사 결과도 2014년 매출실적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매출 1조 8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저에게 다시 성장하는 셰플러코리아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2016년 저에게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6년 저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2016년 저에게 고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해 주십시오!
2016년 저에게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가격 수준을 갖게 해주십시오!
2016년 저에게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임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가혹한 노력이 내일의 성취와 보람으로 보답드릴 것임을 다시 한 번 셰플러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다짐 하겠습니다.
우리의 짙은 땀 냄새는 나와 후배들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
셰플러코리아 대표이사 **이 병 찬**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건강전도사, **마음까지 건강한** 한 해 맞이하기

Health Mentor

송다은

'미스코리아 송다은', '슈퍼모델 송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송다은'을 검색하면 그와 연관된 검색어들이 매우 화려하다. 허나 그의 본래 직업은 요가 지도자. 요가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건강을 소통하고자 한다. 열정만큼이나 따뜻한 헬스멘토 송다은의 건강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얻는 법, 요가의 매력에 빠지다

45kg. 그는 대학생 시절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무려 15kg 감량에 성공했지만 다이어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후유증을 가져다줬다. 더불어 깡마른 몸매가 되면서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보자란 생각에 우연히 만난 요가는 그를 푹 빠지게 만들었다. 그에게 요가는 건강과 즐거움을 찾아주는 원동력과도 같았다고. "요가를 시작하자마자 그 매력에 빠졌고, 곧바로 지도자 과정을 택했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요가 수업을 지도하게 되었어요."

요가는 '심신이 하나가 된 상태로 오로지 자신과 교감을 하는 시간을 선물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에 전달되는 상쾌한 기분과 건강한 에너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단다. 이런 그의 열정은 요가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아로마테라피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로마 오일은 각각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요가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기에 그는 두 가지가 결합된 '아로마 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도모하는 보완대체 요법인 아로마테라피와 요가를 결합시켜 탄생한 '아로마 요가'는 정신과 육체적 교감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새로운 웰빙라이프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그의 가장 큰 목표다.

> 요가는 심신이 하나가 된 상태로 오로지 자신과 교감을 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다양한 도전, 그리고 노력

미스코리아 출신, 슈퍼모델 출신 요가 강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사실 요가 지도자 타이틀이 먼저다. "2006년 요가와 첫 인연이 되면서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미인대회를 출전하게 됐죠.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였어요." 2008년 미스코리아 부산 선, 2009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3위에 당선되면서 '송다은'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기업체 강의를 도맡아 하면서 요가 지도자로서의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나갔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끊임없이 자신과 밀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와 교감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송다은과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오랜 시간 사무실 책상 앞에서 앉아있거나 현장에 서있다 보면 몸이 딱딱하게 굳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전도사 송다은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1 마시는 숨에 허리를 똑바로 세워 자세를 바로 잡는다.

2 오른손으로 의자 뒤편을 잡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같은 방향으로 돌린다.

3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호흡과 함께 10번씩 반복한다.

1 의자 끝에 허리를 펴고 걸터앉는다.

2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은 왼쪽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잡는다.

3 마시는 숨에 허리를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여 호흡과 함께 30초간 유지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1 팔을 넓게 벌려 등 쪽으로 상체를 펴준다. 발은 뒤꿈치를 들고 발목은 펴준다.

2 등 뒤에서 마시는 숨에 양손 깍지를 끼고 내쉬는 숨에 손을 쭉 펴주며 상체를 무릎에 닿을 정도로 숙인다.

3 제자리로 돌아와 호흡과 함께 한 번씩 더 반복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실력에 대한 의문과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자리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물론 미인대회 출전은 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가져다 준 발판이 되어줬기에 더 없이 소중한 경험이라 말을 덧붙였다. 스무 살 초반의 멋진 도전들은 지금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9년차 요가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차병원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을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많은 기업에 출강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쿠키티비 〈송다은의 안티에이징 요가〉와 모바일 뷰티서비스 〈셀프뷰티〉에서 보디멘토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좀 더 많은 사람과 요가로 소통하기 위해 '송다은의 아로마 요가'를 오픈하기도 했다.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고, 자신만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건강한 삶을 꿈꾸는 건강 전도사

요새 그는 무척이나 바쁘다. 최근 그가 직접 쓴 저서 〈이너피스 요가〉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가지 심리 상태에 대한 테라피 레시피를 담은 1권,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요가 레시피를 담은 2권, 보디관리를 위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담은 3권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겪으면서 배운 노하우와 경험 등을 고스란히 담아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 책은 다소 어렵게 생각되는 요가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접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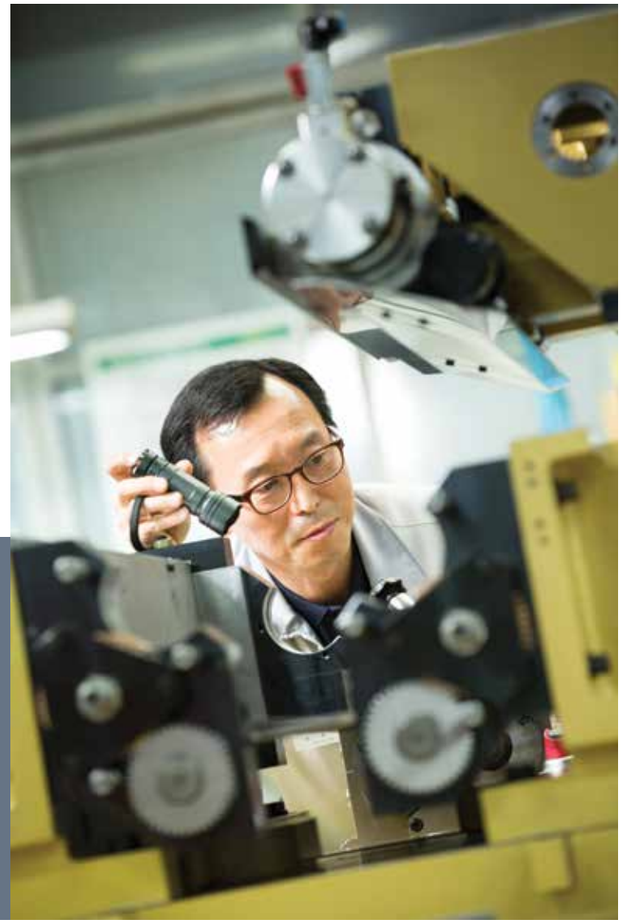
덧붙여 그는 셰플러인들의 건강을 위해 소소한 팁을 전달했다. "추운 겨울일수록 귀찮더라도 더 많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즉각 풀어주는 것이 더욱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게 만듭니다. 강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가는 여자의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자에게도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스테미너를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다. 호흡을 깊게하여 몸 내부의 장기를 마사지 해주어 술, 담배 등으로 몸을 뒤덮고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선 끊임없이 자신과 밀당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고민과 걱정이 있잖아요. 스스로와 교감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그는 지도자를 넘어 건강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꿈꾼다. 앞으로 아로마 요가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 비법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는 벌써부터 가슴 벅차고 설렌단다.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송다은. 요가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자신을 갈고 닦는 좋은 습관이 최고를 향한 첫걸음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두호** 기술명장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두호 기술명장의 하루 시작은 남다르다. 보통 업무 시작은 8시 30분이지만 최두호 기술명장은 7시쯤 출근해서 1시간 가량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 동안 책도 보고 영어공부도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며 하루를 준비한다. 이렇게 남다른 하루를 시작한지 어언 20여 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작은 시간의 조각들이 모여 오늘의 그에게 '명장'이라는 이름을 안겨주었다.

신뢰를 만드는 일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부터

최두호 기술명장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회사에서도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믿고 있는데,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자신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최두호 기술명장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격증 획득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이후 틈틈이 공부를 이어가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자격을 획득했고 이러한 시간들이 이어지다보니 어느덧 기계가공기능장, 실기교사, 방화관리자, 지게차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공평하게 부여받은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면 됩니다. 자격증은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그는 여전히 보다 나은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고 공부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힘이 되었다고 한다.

안정된 기술의 공급을 위한 교두보 마련

세플러코리아의 SMB(Special Machine Building, 전용기개발팀)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우리 그룹이 생산하는 베어링이 높은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삭가공과 조립공정에 최적화된 설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설비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설비개발과 개선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두호 기술명장은 이러한 설비조립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용기개발팀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A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1, 2세대 볼베어링 Type과 3세대 테이퍼베어링 Type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해오고 있었다. 2013년도부터는 당사의 신규사업으로 3세대 볼베어링 Type을 수주하였고, 2014년도에 연삭 및 조립라인을 전용기개발팀에서 모두 공급하여 현재 양산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같은 해에 추가적으로 수주한 휠베어링의 생산을 위해 현재 2차 라인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이미 연삭설비와 일부 조립설비는 출하 되었고 나머지 설비는 금년도 완료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품질로 인정받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최근에는 우리 회사의 베어링사업에 강력한 경쟁사들이 등장하여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세대 휠베어링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습득해왔던 기술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베어링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설비를 우리 팀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모든 팀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세플러그룹 내에서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인도, 미국 등에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AD 프로젝트에 있어서만큼은 세플러코리아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다른 그룹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도에는 이미 그룹사로부터 수주받은 중요한 몇 개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대형 프로젝트가 멕시코와 중국의 STRB라인 추가 증설 프로젝트다. 특히 이 증설라인들은 우리 SMB가 개발하여 독일 본사에서도 최고라고 인정한 연삭기계 및 조립설비들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국내용, 수출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 그룹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고객인 생산라인 작업자들이 편하게 사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해외의 우리 그룹사로부터 한국 SMB에서 만든 기계가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최두호 기술명장의 열정은 새해에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그의 바람은 여전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다. 종착역으로서의 최고가 아닌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자신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Best가 되기 위한 최두호 기술명장의 3 Step

1. 공부는 학교 졸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의 나를 위해 건강한 공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최고라는 자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늘 최고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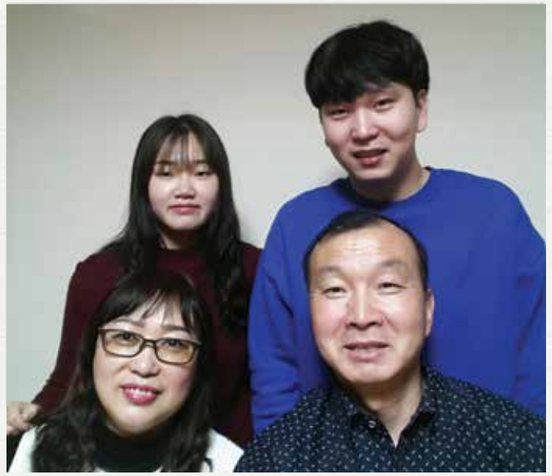
2.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신을 계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투자해서 늘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자.

3.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자. 순간순간 일어나는 아이디어나 의문점은 바로 메모하자. 이런 메모들이 자기 계발의 밑거름이 된다.

▲ 최두호 기술명장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20년 삶의 동반자에게 보내는 깜짝 선물

안산공장 **조병성** 사원의 아내 **신경림** 세터에게 보내는 편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리기 쉽다. 매일 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는지. 말로는 미처 전하지 못했다면 편지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편지지 위에 나의 진심을 써내려가 보자. 셰플러인을 위해 가족이 부친 편지를 소개하는 코너. 언제나 나의 편, 나의 곁에 있어주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기쁜 일, 슬픈 일 함께합시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직접 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닿기 힘든 것이 마음이다. 안산공장 조병성 사원과 신경림 세터는 서로 만나 함께한 날이 벌써 20년이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가정을 꾸렸다. 조병성 사원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거짓말을 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 "집에서 놀면 뭐 해~"라며 남편과 같은 공장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아내 신경림 세터. 그런 아내의 밝고 씩씩한 모습에 항상 힘을 얻는다는 조병성 사원은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고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그 마음을 모두 담아 아내 몰래 편지를 띄웠다. 그에 깜짝 고백을 들어보자.

셰플러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손편지로 표현해 보세요. 편지와 함께 가족사진(1~2매)을 보내시면 〈당신을 생각합니다〉에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림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 2016년이 되겠네요.
큰 아들 선형이와 작은 딸 예림이는 성인이 되어 대학생의 생활을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당신과 나는 시곗바늘을 돌아가듯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항상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또 한 해를 하루하루 보내겠지요.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도 성인이 된 이 시점에
2016년에는 우리 또한 변화된 생활을 당신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이 글을 적어봅니다.
당신을 만나 결혼하여 함께한 날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당신을 처음 만날 때 처형은 목포에서 결혼을 했지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과
그 책 속에 적은 액수지만 돈을 넣어 두었다고 날. 결혼식을 갔다 온 후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문을 열어 당신과 큰 아들 선형이, 작은 딸 예림이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룬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당신을 만나 결혼을 고백할 때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프러포즈도 못 해주고
고백 또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호언장담했지만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집에서 놀면 뭐 해~"하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한지 어느덧 12년 째이네.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내색도 안 하고
회사와 가정에서 항상 밝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회사와 집에서
밝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2016년에는 내가 셰플러 안산에 입사한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20년 근속상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한 당신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 했던 약속을
유럽 여행에서의 프러포즈를 시작으로 지켜가려 합니다.
지금껏 지키지 못한 나의 약속을 이 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
당신을 사랑하고 약속을 지켜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미안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한 당신에게 고맙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이해해 준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 진심을 담아 말해 봅니다. 경림 씨 사랑합니다.
우리의 희망 큰 아들 선형이와 작은 딸 예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시기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어 가는 중에도 나쁜 생각 안 하고 항상 밝고 건강하게 커줘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을 이 글을 통해 말을 해주고 싶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기쁜 일 슬픈 일 등 함께하며 복된 가정 꾸려가도록 합시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촬영협조 KIC레저테마파크 카트경주장

서킷 위에 미끄러지듯 불꽃 튀는 스피드를 즐겨라!

전주공장 AD라인의 카트체험

추위를 잊은 듯, 전남 영암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레이스 경기장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카트의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전주공장 AD라인 사우들이 모였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두 뺨을 시리게 해도
사우들은 웃음꽃이 만발했다.
색다른 체험을 통해 화합을 다져나갔던
이들의 신나는 카트체험 현장을 따라 가봤다.

짜릿한 스피드감을 즐길 수 있는 카트 체험

고객이 만족하는 생산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주공장 AD라인 사우들. 2014년 1월 공식 출범된 AD 프로젝트의 1차 라인이 최근 신설 완료되면서 팀워크가 더욱 돈독해졌단다. 생산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샘플을 완벽히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우들은 힘든 기색 없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의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그러다보니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면서 끈끈해졌다고 말한다. 최강의 팀워크를 자부하는 전주공장 AD라인 사우들이 완벽한 화합을 만들기 위해 서킷을 마음껏 질주하는 카트체험에 도전했다.

오늘 사우들이 카트체험을 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orea International Circuit)'은 국제 F1경기가 펼쳐지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 경기장이다. 이곳은 F1 경주용 서킷과 카트 서킷으로 구분돼 일반인들도 쉽게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게 장소를 따로 마련해 뒀다. 조작이 쉬운 카트는 초보자들도 짜릿한 스피드감을 즐길 수 있기에 인기가 많다. 11명의 전주공장 AD라인 사우들이 카트를 즐길 곳은 바로 1.6km의 레저코스다. 체험을 위해 출발 지점에 모여든 사우들은 눈앞에서 금세 사라지는 카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굉음을 내며 서킷에 미끄러지는 카트는 그

전주공장 AD라인 사우들은 생산 설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힘든 기색 없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의 힘을 합쳐 각종 샘플들도 완벽히 만들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다보니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면서
최고의 단합을 자랑하게 됐다.

속도를 예상케 했다. "저 카트를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건가요? 엄청나게 빨라요." 모두가 빠른 스피드에 놀란 눈치였지만 사우들은 어느새 카트 유니폼을 갈아입고 설렘과 기대 가득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잊게 만든 스피드

오렌지색 유니폼을 모두 갖춰 입고 나서야 전문 카레이서가 된 듯, 사우들은 한층 들떠 보였다. "왠지 지구를 구하러 출동하는 전사들 같지 않은가요?" 팀 막내인 전익영 사원이 분위기 띄우고 나섰다. 사우들은 카트 서킷에 들어서자마자 각자 마음에 드는 카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카트를 맘껏 즐기기 전, 체험에 가장 중요한 안전 헬멧을 나눠 착용하고 이어진 서킷 진행요원의 안전 교육에 귀를 기울였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카트 조작방법 및 수신호 교육을 비롯해 주의사항을 전해들은 사우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셰플러코리아, 쌩쌩 신나게 달려봅시다!" 우렁찬 응원과 함성이 더해져 열한 대의 카트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사우들은 빠른 속도에 몸을 맡겼다. 구불구불한 코스는 재미를 덧붙였다. "제가 먼저 지나갈게요." 여러 바퀴를 달리면서 앞지르기도 했다가 나란히 가기도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온전히 서킷을 즐겼다. 대여섯 바퀴를 정신없이 돌았을까. 시작 장소를 떠나 마음껏 달리던 카트가 하나 둘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몸소 스피드를 즐겼던 사우들은 카트 체험이 매우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윗줄 왼쪽부터)
휠베어링 세그먼트 **박태문** 주임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영록 사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동환** 사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송윤섭** 주임
휠베어링 세그먼트 **한동재** 사원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현호** 사원

(아래줄 왼쪽부터)
휠베어링 세그먼트 **정도영** 사원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전익영** 사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소병일** 사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대윤** 사원
휠베어링 세그먼트 **임홍균** 사원

단단한 팀워크,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다

체험이 끝난 후, 사우들은 직접 경험한 스피드감 때문에 흥분이 한참이나 가라앉지 않았다. 더욱이나 베어링이 사용됐을 카트와의 인연은 오늘 체험이 우연이 아니었다며 베어링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오랜만에 팀원들의 함박웃음을 보니 기분이 좋다는 송윤섭 주임.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 팀원들과 함께 사기충전 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면서 팀원 각자만이 내뿜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이런 에너지가 모인다면 어떠한 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더불어 팀이 더욱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는 팀워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카트 체험을 계기로 화합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우들. 2016년 AD 2차라인 개발과 GM 3차라인 샘플 납품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앞두고 지금의 단합이라면 아무 걱정 없단다. 앞으로도 신뢰 높은 수행과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더 자주 화합의 시간을 갖자며 사우들은 손을 모아 약속했다. 서킷 위를 쌩쌩 달리는 카트처럼 전주공장 AD 라인의 힘찬 질주가 기대된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
팀원들과 함께 사기충전 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면서
팀원 각자만이 내뿜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이런 에너지가 모인다면
어떠한 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 mini interview

전익영 사원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추운 날씨였지만 팀원 모두가 도전 의욕이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광활한 서킷을 고속으로 누비며 무한 질주하는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 했어요. 더불어 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기충천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도 최고의 단합을 자랑하는 전주공장 AD라인답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 Tip

KIC레저테마파크 카트경주장

국제 F1경기가 펼쳐지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는 일반인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카트경주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문의 : 070.4227.7788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928
홈페이지 : www.koreacircuit.kr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촬영협조 문화체험원 '솟을대문 이가'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색색의 한국 전통문화

Corporate Data Management
Mr. Loureiro Gabriel
& 정보시스템 **고광우** 사원

겹겹이 기와들이 수놓듯 줄지어 있는 북촌한옥마을, 한국의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한 곳에서 우리 전통을 오감으로 체험하기 위해 고광우 사원이 Gabriel의 손을 이끈 곳은 문화체험원 '솟을대문 이가'였다. 색다른 경험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큰 대문의 문지방을 건넜다.

한국의 따뜻한 온정을 담은 향긋한 전통차

문화체험원 '이가'는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치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옛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체험관에 들어선 Gabriel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집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추운 겨울인데도 집이 무척 따뜻하고 아늑해요." 어느덧 고광우 사원과 Gabriel은 사랑방에 마주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낮은 찻상 앞에 양반다리가 어색한 듯 불편해 보였으나 Gabriel은 이내 "생각보다 아주 편안한데요"라고 웃음 지었다. 찻상 위에 색이 고운 오미자차와 향긋한 유자차가 놓였다. 고광우 사원은 전통차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도록 차의 주재료에 대해 설명했다. 오미자차를 선택한 Gabriel이 한 모금 입을 적시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두 사람의 인연은 Gabriel이 한 달여 전, 같은 팀의 일원이 되면서 시작됐다. 2007년에 처음 세플러에 입사한 Gabriel은 퇴사 후 2011년에 다시 재입사를 해 현재 세플러코리아에 오게 됐다. 아직은 한국이 많이 낯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고광우 사원을 비롯해 같은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사람들이 정말 정다워요. 모두가 따뜻하게 절 반겨줬어요." 덕분에 익숙지 않은 겨울도 잘 견뎌내고 있단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는 브라질의 겨울과 달리 한국은 유난히 추울 법도 할 텐데 그는 사람들의 온정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차가 식어 가는지도 모른 채 고광우 사원과 Gabriel은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사람들이 정말 정다워요. 모두가 따뜻하게 절 반겨줬어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는 브라질의 겨울과 달리 한국은 유난히 추울 법도 할 텐데 Gabriel은 사람들의 온정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단다.

다채로운 색의 조화, 아름다움을 입다

2016년을 맞아 세플러코리아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겠다며 서예 붓을 들고 나선 두 사람. 각자의 소중한 마음을 화선지에 한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상이 만들어 낸
한복은 그야말로 예술이죠"

글자 한 글자씩 옮겨 담았다. 워낙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공부를 조금 했다는 Gabriel이 고광우 사원이 불러주는 음에 맞춰 글씨를 써내려갔다. 어려운 단어는 고광우 사원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완성시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삐뚤빼뚤하게 서툰 글씨지만 먹에 눌러 담은 진심을 전할 수 있음에 제법 뿌듯해 하는 눈치였다.

새해 메시지를 한 편에 접어두고서 한복을 갈아입기 위해 건넌방으로 향했다. 색색의 한복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방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입을 옷을 고르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한복의 전통미는 한국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워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상이 만들어 낸 한복은 그야말로 예술이죠." 고광우 사원의 말에 Gabriel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공감했다. 저고리와 바지를 걸치면서 곳곳이 달려있는 긴 끈을 발견한 Gabriel이 망설이고 있는 찰나 고광우 사원이 바지의 대님과 저고리의 옷고름을 매만져 줬다. "둥글게 말린 고름이 왼쪽 가슴에 붙게 매듭짓는 거죠. 이것이 한국 전통의 리본 묶기 방식이에요." Gabriel은 신기한 듯 매듭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마음까지 든든한 겨울맞이, 김치 만들기

긴 겨울을 나기 위한 한국인의 겨울준비 1순위, 바로 '김장'이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Gabriel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소금에 절인 배추 두 포기, 무, 쪽파, 찹쌀풀,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소금, 새우젓,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들이 대청마루에 깔렸다. 문화체험원 '이가'의 이상미 원장의 지도에 따라 두 사람은 배추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 채썰기로 시작해 갖은 양념 재료들을 한데 버무려 김칫소를 만들었다. 점차 김치의 빛깔을 만들어내면서 두 사람의 입가에는 어느덧 미소가 맺혔다. 김칫소를 배춧잎 사이사이에 넣고 양념을 펴 발라주니 맛깔스런 김치가 탄생했다. 자신이 만든 김치를 얼른 맛보고 싶었는지 배춧잎 한 장을 찢어 입에 넣어본다. "정말 맛있어요."

Gabriel은 불고기, 비빔밥 등등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많이 접했지만도 김치는 평생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음식이 될 것 같단다. 고광우 사원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가 김장하는 것을 구경만 했지 자신의 두 손으로 김치를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기에 뿌듯했다고. 함께 체험하며 추억을 공유해 나갔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같은 팀에서 파트너로 협업하며 셰플러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고광우 사원과 Gabriel.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는 김치처럼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무르익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길 기대해 본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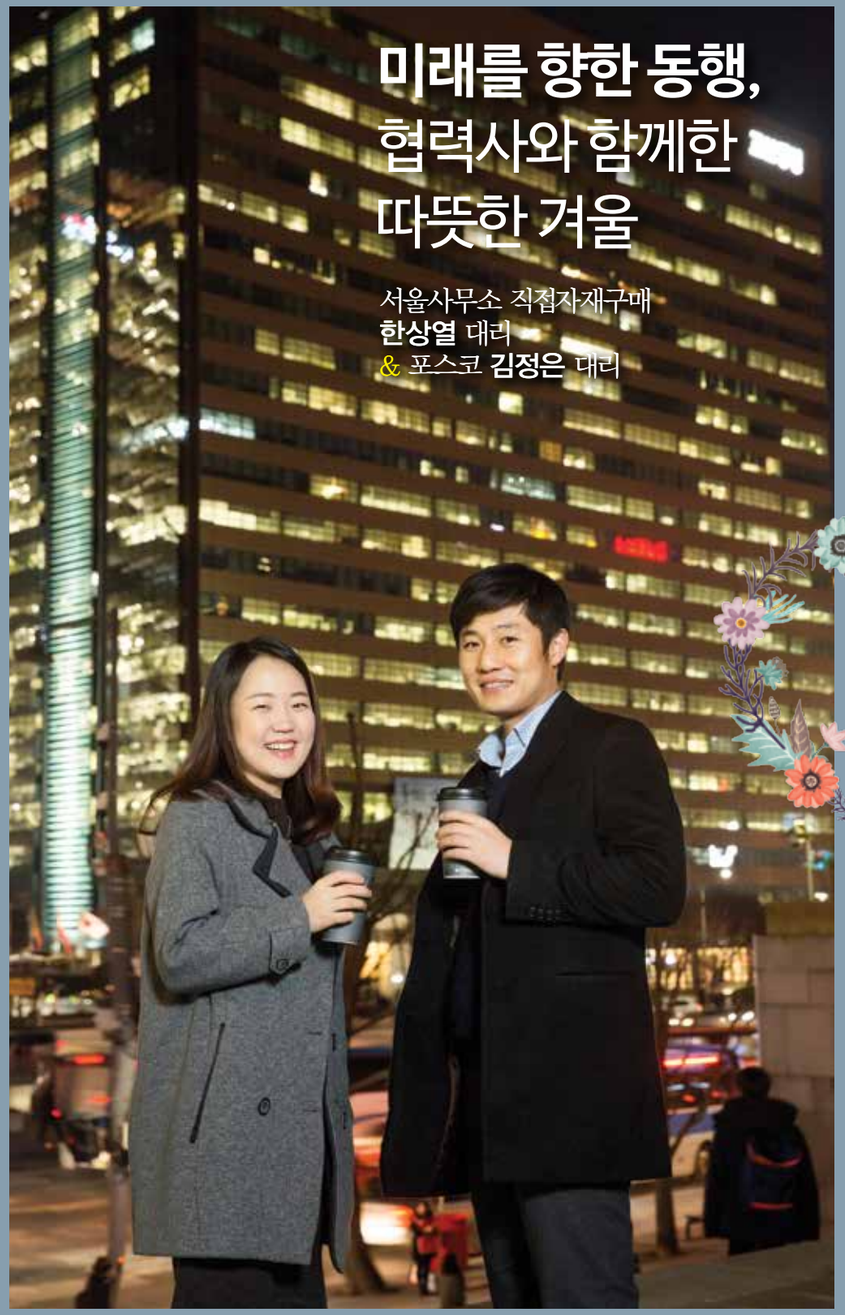
문화체험원 이가
(Korea Culture Experience)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체험원 '이가'는 북촌한옥마을에
'솟을대문 이가', 명동에
'서울 김치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전통 의상 입기, 예절 배우기,
전통차 마시기, 김치 만들기,
파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문의 : 02.762.4900
홈페이지 : www.seoulkimchi.co.kr
주소 : **〈솟을대문 이가〉**
서울시 종로구 계동 50-1
〈서울 김치 문화 체험관〉
서울시 중구 명동2가 32-2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국 문화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전통체험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글 **편집실** · 사진 **안지섭** 만만디 스튜디오 · 장소협조 **설가온** 02.733.3276



미래를 향한 동행, 협력사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
한상열 대리
& 포스코 **김정은** 대리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와
협력사 포스코
마케팅팀과의 만남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12월. 오늘 서울사무소 구매팀은 셰플러코리아와 손을 맞잡고 애쓰는 협력사 포스코 관계자들을 모시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일 년 동안 서로 수고스러웠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더욱 끈끈한 2016년을 위해 의기투합 해본다.

포스코가 말하는 셰플러코리아, '신뢰' 그리고 '따뜻함'

"포스코와의 파트너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협력사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의 안대환 선임매니저, 한상열 대리, 조남원 대리와 포스코 마케팅팀의 임규환 팀장, 김정은 대리가 따뜻한 자리를 메웠다. 클라이언트로서 만난 인연이지만 마치 한 팀인 것처럼 각별한 친분을 자랑한다. 오늘 셰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포스코 직원들. 모두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셰플러코리아는 서로 한 약속은 꼭 지켜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하지 않죠." 포스코의 김정은 대리가 셰플러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뢰'를 꼽았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풀어가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단다. "저는 여러 나라의 셰플러를 방문했었어요. 각기 다른 나라지만 신기하게도 셰플러만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닮았더라고요. 이것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셰플러만의 기업 문화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셰플러코리아는 서로
한 약속은 꼭 지켜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하지 않죠."

신선한 한정식에 곁들인 즐거운 대화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위치한 한정식당 '설가온'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제철의 신선한 재료들로 최상의 기품이 어우러진 음식을 제공하기에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에서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소다. "원래 맛있는 음식은 함께 먹어야 제맛이죠. 오늘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얘기 나눕시다." 안대환 선임매니저가 먼저 식사를 권했다.

매일같이 통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건 늘 정겨워 근래에 자주 모이게 됐다고. 두 달마다 한 번씩 모여 좀 더 진솔한 소통을 나누기 위한 시간을 만들고 있다. "올해 9월에 셰플러그룹의 부사장님께서 포항제철소에 방문하셨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부사장의 방문은 포스코와 돈독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았다.

사람들간의 화합이 만들어 낸 돈독한 파트너십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니 제법 쌀쌀한 날씨에 모두가 몸을 움츠렸다. 커피숍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그들은 즐거운 대화에 여념이 없었다. 각자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테이크아웃 잔을 손으로 감싸며 광화문 거리로 나왔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광화문 광장을 거닐며 2016년의 계획을 다짐해본다.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서 우리만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야죠."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가 '일'로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기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개인의 화합은 팀 간의 화합을 만들고 나아가 회사 간의 화합을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 앞으로도 셰플러코리아와 포스코는 미래를 향한 동행자로 함께 걸어 나갈 것이다.

2015 도쿄 모터쇼를 가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JAMA)가 주관하는 도쿄 모터쇼는 1954년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처음 열렸다. 1973년까지는 매년 승용차와 상용차를 함께 전시하다가 홀수 해에는 승용차, 짝수 해에는 상용차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개최 방식이 바뀌었다. 현재는 상용차를 전시하는 홀수 해의 전시회를 도쿄 모터쇼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작해 11월 8일까지 81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도쿄 모터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도쿄 모터쇼

올해로 60주년이 된 도쿄 모터쇼는 횟수로 제44회를 맞이하였다. 모터쇼 개막을 5일 앞둔 10월 24일에는 60주년 기념행사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가 제1회 모터쇼가 개최되었던 도쿄 히비야를 출발하여 니혼바시, 긴자를 순회하는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번 모터쇼에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서비스, 모터 사이클 분야에 이르기까지 11개국에서 16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최근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의 약세로 도쿄 모터쇼도 힘을 잃어 4년 전부터는 치바현 마쿠하리 매세의 거대한 전시장에서 시내 빅사이트로 전시회장을 옮겨 진행하고 있다. 모터쇼의 테마는 '당신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Your heart will race)'로 고성능 모델과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등 총 75대의 월드 프리미어와 함께 68대의 차종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2015(Smart Mobility City 2015)'라는 프로젝트로 준비한 테마 전시는 자동차를 통해 생활이 바뀌는 사회를 주제로 이동성을 극대화 한 초소형 모델들을 전시하였다. 실제로 전시장 내에서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승차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따로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제45회 도쿄 모터쇼는 2017년 가을에 개최될 예정이다.

부품업체로 참가한 셰플러

세계 5대 모터쇼 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만큼 도쿄 모터쇼 참가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셰플러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로 이번 모터쇼에 참가하여 '미래를 위한 움직임(Mobility for tomorrow)'을 주제로 자동차 모형 안에 담은 40여 가지의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다. 셰플러는 전시장 중앙에 전시한 자동차 모형을 통해 고정밀 컴포넌트와 시스템을 위한 엔진, 트랜스미션, 샤시 및 전기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디지털로 구현한 신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며 셰플러의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셰플러 전기 포뮬러 차량

셰플러가 전시장에 마련한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는 포뮬러 E(Formula E)였다. 포뮬러 E 드라이버와 함께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ABT Schaeffler FE01 차량은 셰플러가 제작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장착한 전기 포뮬러 차량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포뮬러 E 대회를 위해 제작된 이 차량은 지난 10월 24일 북경에서 열린 포뮬러 E 2015/2016 시즌 첫 경기에서 2위로 경기를 끝마친 직후에 행사를 위해 도쿄 모터쇼에 참가하였다. 드라이버인 Lucas di Grassi와 함께 취재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포뮬러 E 차량은 북경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16년 런던에서 진행될 제 10경기까지 참가할 예정이다.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촬영협조 볼링라운지 더 프레임 (02.6959.6577)

화끈하게 강렬하게, 퍼펙트 스트라이크!

서울사무소 볼링동호회 '동그리'

열 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렸을 때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은 볼링의 매력에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서울사무소 볼링동호회 '동그리'. 주춤한 볼링의 인기에도 볼링동호회 회원들은 오랜 시간 힘차게 볼링공을 굴려왔다. 최근 더욱 활기를 띠며 활동을 재개한 볼링동호회 '동그리'를 소개한다.

①최승묵 부장 ②박은선 과장 ③조경희 사원
④김문겸 선임매니저 ⑤박선영 사원 ⑥김수원 차장

또 다시 활기를 되찾은 볼링동호회 '동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사무소 볼링동호회 '동그리'. 동그란 볼링공의 형태를 따서 동호회의 이름을 만들었지만 회원들끼리 둥글게 둥글게 친목을 다져나가자는데 의의가 컸단다. "제가 27년 전 입사하기 전부터 동호회가 있었어요.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에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문겸 선임매니저가 동호회 자랑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볼링동호회도 큰 고민이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원들끼리 즐기는 문화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볼링의 인기가 서서히 식어갔고, 그러다보니 볼링장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다. 동호회 회원 수 또한 점차 줄어들면서 활동도 뜸해지게 됐다. 때문에 볼링동호회 '동그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고. 요즘 라운지 바 형태로 결합된 볼링장이 등장하면서 볼링문화도 많이 변화됐으며 볼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다시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동그리'에 문을 두드린 신입 회원도 올해만 8명이다. 기사회생으로 활기를 되찾은 동호회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스트라이크!

볼링동호회 '동그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세 번 연속 스트라이크 하기. 처음 미션을 전해들은 회원들은 멈칫하더니 각자 레일에 굴릴 볼링공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연습의 시간을 가진 회원들. 열 개의 핀은 레일에 발이 묶인 듯 쉽사리 넘어가 주지 않았다. 손을 한데 모아 파이팅을 외치고선 가장 먼저 최승묵 부장이 레일 위에 섰다. 노련미를 더한 김문겸 부장이 굴린 볼링공이 거침없이 핀을 공격했다. "스트라이크!" 열 개의 핀이 모두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환호성이 터졌다. 서로 손을 마주치며 응원을 더해나갔다.

볼링은 더 이상
추억의 스포츠가 아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힘이 있기에 그 인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 mini interview

김문겸 선임매니저
전략기획

오늘 오랜만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볼링이 경쟁보다는 화합의 스포츠이잖아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공을 굴리면서 단합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업무를 떠나 직원들과 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매우 뜻깊습니다. 회원 수도 많이 늘었고 활동적인 동호회 분위기답게 자주 모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볼링을 좋아하시는 셰플러인이라면 언제든지 볼링동호회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분위기를 이어 조경희 사원이 다음 순서를 위해 레일에 올랐다. 공이 끝까지 굴러가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법.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지켜본 순간, 마지막 남은 핀이 옆에 핀과 부딪혀 쓰러졌다. "스트라이크!" 또 한 번의 성공에 회원들의 '미션을 성공하겠노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마지막 주자로 박은선 과장이 손에 볼을 들었다. 자신감 있게 굴린 볼링공은 핀들을 힘없이 무너뜨렸고 미션 성공을 알렸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미션은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를 응원하며, 힘차게 굴러가는 따뜻한 시간

미션을 완수하고 나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실력을 맘껏 뽐내며 열 개의 핀을 사정없이 쓰러뜨렸다. 오랜만에 모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채 마르지 않았다. 게임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옹기종기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갔다. 사실 이날은 최승묵 부장의 동호회 신임 회장으로의 첫 부임을 축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된 만큼 앞으로도 더 자주 모이면서 볼링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회장의 각오와 함께 회원들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볼링은 더 이상 추억의 스포츠가 아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힘이 있기에 그 인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볼링동호회 '동그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더 화끈하게, 더 강렬하게 굴러갈 것이다.

For Life

똑똑한 생활의 지혜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난방비 걱정

마이너스 난방비로 극복!

김장 준비도 마치기 전
눈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허겁지겁 월동준비를 서둘렀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일러를 틀자니
매서운 겨울만큼이나
두려운 난방비가 걱정되네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온도를 찾아
포근하고 풍족한 겨울이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난방비를 잡는 기초상식

난방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보일러 사용법 첫 번째 '외출모드 설정'

외출모드를 설정해놓고 나갈지, 보일러를 끄고 나가야할지 고민이라면 우선 집의 단열 정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열이 잘되는 집의 경우 온도를 평소보다 2~3℃ 낮춰 설정해 놓으면 따뜻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어 차가운 바닥을 다시 난방하는 것보다 적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단열이 원활하지 않은 집의 경우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자주 돌아가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절약 두 번째 사용법 '보일러 청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방치되기 쉬운 보일러의 배관은 이물질이 쌓일수록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 방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의 고장과 높은 난방비의 주범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수를 1년에 한 번 교체하거나 에어 콕 밸브를 통해 배관을 청소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보일러 사용법 세 번째 '단열용품'

제품을 사용해 난방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에어캡과 문풍지, 커튼과 카펫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어캡과 문풍지를 틈새에 붙여 새는 따뜻한 바람을 잡고 찬바람은 막아 실내온도를 유지하거나 커튼과 카펫을 놓아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온도를 플러스로! 일상 습관 절약법

가열식 가습기를 활용해보자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100℃로 가열한 뒤 약 70~80℃의 수증기를 뿜어 습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실내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증기 속 작은 물방울들이 오랫동안 열을 간직하기 때문에 온도유지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잡아라

무심코 따뜻한 쪽으로 돌려놓는 수도꼭지의 방향에도 난방비는 달라집니다. 온수의 방향으로 수도꼭지가 놓여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보일러가 작동하기 때문에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욕조 목욕보다 샤워를 할 경우 목욕보다 1/3 정도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수로 데워지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촬영협조 Sea Life 아쿠아리움 051.740.1700

아쿠아리움에서 만나는 바닷속 세상 **겨울 바다를 가다**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강호성** 주임

해운대 모래사장에 위치한
바닷속 신비,
Sea Life 아쿠아리움.
그곳을 방문한
강호성 주임 부부와
아들 성준이는
시간가는 줄 모르는 듯
바다를 탐험했다.
머리 위로 상어가 헤엄치고
물고기가 추는 군무를 즐길 수 있는
바닷속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생애 첫 겨울 바다, 추억을 새기다

겨울답지 않은 따스한 날씨와 맑은 하늘에 모래사장은 갈매기와 비둘기, 여행객들의 발자국이 가득했다. 좋은 날 해운대 앞바다에 도착한 오늘의 주인공 강호성 주임과 아내 김영미 씨, 아들 성준이는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찬찬히 거닐며 여유를 즐겼다. "성준아, 파도야! 이거 봐봐!" 겨울 바다를 처음 보는 성준이를 위해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다는 강호성 주임 부부. "모래성이라도 쌓아볼까? 어때 성준아?" 겨울이기에 발을 못 담가보는 것이 아쉬운지 모래성이라도 쌓자고 말하는 강호성 주임의 말 속에는 해맑은 아빠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올해 4살이 되는 성준이는 바다가 처음이 아니다. 여름철 해운대 바다에 놀러 온 적이 있지만 바다에 빠질 뻔해 파도를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밀려오는 바람 때문에 크게 요동치는 파도 소리에 겁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모래사장에 글을 남기기 여념이 없었다. "이거 엄마 이름이에요? 나도 쓸 거예요!" 푹푹 빠지는 모래 위를 뒤뚱거리고 본인의 키만큼 기다란 나뭇가지에 휘청거리면서도 글씨를 꾹꾹 새기는 손길이 제법 야무졌다. 엄마가 쓴 글자 위를 따라 그리느라 하얀 물거품을 날리는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쿠아리움에서의 특별한 시간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해운대 바다를 둘러본 성준이는 해운대 모래사장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아쿠아리움으로 향했다. 해운대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명소 '해운대 12경'으로 손꼽히는 아쿠아리움에는 해저터널을 비롯해 다양한 물고기들로 가득했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열대우림' 아마존에 사는 사나운 물고기와 세계최대의 민물고기로 길이가 5m 넘는 피라루쿠가 헤엄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생김새에 겁을 먹으면 어쩌나 고민하던 것도 잠시 성준이는 바위틈에 숨은 물고기를 찾아보느라 바빴다. 엄마의 품에 안겨 물고기를 손으로 쫓는 성준이를 보며 강호성 주임은 미소 지었다. "파도는 무서워하지만 물고기들을 직접 보는 건 아주 좋아해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물고기를 보면 마치 박사가 된 마냥 설명하기 바빠요."

"성준아, 파도야!
이거 봐봐!"
겨울 바다를 처음 보는
성준이를 위해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다는
강호성 주임 부부.

"고맙고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포근한
겨울을 보낼
강호성 주임 가족.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눈을 맞추지도 찬찬히 즐겨보지도 못한 성준이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펭귄이다! 펭귄이 지금 헤엄치고 있어. 가까이 가서 인사해 볼까?" 때마침 펭귄 수조는 구경하는 사람이 적었고 펭귄이 유리 벽 가까이 헤엄치고 있었다. 벽에 살짝 손을 짚은 순간 펭귄은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맞대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도 아이처럼 활짝 소리 내 웃었다. 웃는 얼굴의 가오리와 영롱한 푸른빛이 나는 거대 조개, 해저터널 안을 헤엄치며 머리 위를 지나는 거대한 상어를 따라 세 가족은 아쿠아리움을 즐겼다.

친구 같은 아빠, 듬직한 남편이 되기까지

지금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소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순조로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했다. "회사 아주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2시간이나 늦어서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연은 인연이었던지 술도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와 참 잘 맞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백했죠." 그렇게 6개월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눈 커플은 애인이 아닌 부부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면서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다.

항상 긍정적이고 남편의 열렬한 응원군인 아내 김영미 씨와 한참 귀엽고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 강성준 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듬직한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되자고 다짐한다는 강호성 주임.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최근 아들과 보내는 주말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일하느라 잘 놀아주지 못했는데 요즘 주말에는 함께 공원으로 놀러 가거나 각종 체험관에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이 같이할 수 있는 체험도 자주 하다 보니, 요즘

에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한 마디를 조심스레 들을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가족을 생각하는 아빠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겨울을 보낼 강호성 주임 가족을 응원한다.

+ Tip

Sea Life 아쿠아리움

펭귄, 수달, 거북이를 비롯해 작은 불가사리와 가오리, 거대한 상어까지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가득한 아쿠아리움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앞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상어 먹이주기 쇼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곳으로 이색적인 아쿠아리움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 051.740.1700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26(중동)
홈페이지 : www.busanaquarium.com

글 서울사무소 법무팀 · 일러스트 정지애

유실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타인의 유실물을
개인이 소유하게 될 때 문제가 있을까?
금번호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360조)에
대해서 소개한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과 이로 인해
적용될 수 있는 법에 관해 알기
쉽게 알아보자.

사례

Q1

궁전탑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홍길동 씨는 부인 몰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낡은 여행 가방에 1천만 원을 넣고 그 위를 헌 옷으로 덮은 뒤 장롱 깊숙한 곳에 가방을 보관하였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가사도우미는 낡은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헌 옷이 든 줄로만 알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 버렸다. 우연히 친구가 사는 궁전탑 아파트를 방문한 나대박 씨는 담배꽁초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다가 여행가방 안에 든 돈을 발견하였다. 나대박 씨는 이 돈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가져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A2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지고 가면 형법 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례에서 쓰레기장에 버려진 돈은 유실물에 해당한다. 나대박이 만약 돈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를 하고 6개월 안에 홍길동이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대박이 돈을 가지게 된다. 6개월 안에 소유자인 홍길동이 나타날 경우 나대박은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즉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대박이 돈을 가져갈 경우, 형법 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상 속 법률 상식, 〈Law school of Schaeffler〉 코너를 통해 배워보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사소하지만 어려운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례

Q2

궁전탑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아파트에서 10km 떨어진 쓰레기장으로 옮겨지는데,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박수집 씨는 쓰레기장 근처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갖기로 결심하였다. 박수집 씨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A2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면,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갖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주물은 선점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박수집은 디지털카메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례

Q3

최이득 씨는 퇴근길 지하철 선반 위에 있던 어른패드를 발견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본 정알뜰 씨가 20만 원에 어른패드를 구입하였다. 사실 이 어른패드는 이건망 씨의 것이었고, 이건망 씨는 우연히 자신의 어른패드를 가지고 있는 정알뜰 씨를 발견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정알뜰 씨는 어른패드를 반환해야할까?

A3

평온, 공연하게 (강폭행위나 은비(隱秘)에 의하지 않고)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정알뜰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구입하였다면 어른패드의 소유권은 정알뜰에게 있다할 것이나, 어른패드는 유실물이므로 이건망은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20만 원을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최이득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했고, 이후에 천국을 만들었다.”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 & 중공업 **이지형** 대리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에도 선정된 모리셔스 삶에서 쉼표를 잠시 찍고 싶을 때,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아름다운 리조트와 해안

인도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모리셔스.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이곳에서의 추억을 함께 공유해 본다. 모리셔스는 해안을 따라 수백 개의 수준급 호텔들이 많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묵었던 리뚜스룩 리조트는 모리셔스의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인 일로셰프라는 섬을 소유하고 있어 무료로 수상스키, 카약, 스킨스쿠버와 해양 스포츠뿐만 아니라 골프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덕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행 기간 내 멋진 바다와 함께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스킨스쿠버를 즐기다 만난 큰 바다거북이의 모습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화산섬의 신비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

모리셔스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인 만큼 희귀한 자연경관이 많다. 남부지역 샤마렐 폭포와 세븐 컬러즈가 대표적인 곳으로, 샤마렐 폭포는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깊은 절벽으로 폭포가 생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세븐 컬러즈는 화산 폭발 당시 광물들이 각기 다른 온도에서 식어 7가지 빛깔을 내는 언덕으로 햇빛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드러내는데, 새삼 자연의 신비를 깨닫게 한 광경이었다.
자연경관과 함께 모리셔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16세기 무역상들에 의해 발견되어 인도, 중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종교도 힌두교, 불교, 천주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호수 옆에 자리해 호수에 그 모습이 비치던 힌두사원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여행의 필수코스, 쇼핑

모리셔스의 쇼핑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럼 공장이다. 과거 유럽의 식민지로 사탕수수,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모리셔스는 사탕수수가 품질이 우수하여 설탕과 럼이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방문한 럼 공장은 겉모습부터 리조트 못지않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럼의 공정 과정을 볼 수 있고, 시음도 할 수 있다. 럼을 시음해본 후 한국의 주류 면세 한도가 1인당 1리터 이하인 것도 잊은 채 럼의 향에 반해 바닐라럼, 코코넛럼 등 6병을 사서 리조트로 돌아왔다. 명품가방 대신 술병들 때문에 세관검사에 걸릴까 가슴 졸였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모리셔스의 휴양을 셰플러인들도 함께 경험해보길 기대해 본다.

1 2 3 4 5

1. 모리셔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호텔들
2. 각도에 따라 7가지 빛깔을 내는 세븐 컬러즈
3.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모리셔스
4.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아름다운 곳
5. 모리셔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일로셰프의 리조트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 자료제공 집컴퍼니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손용훈** 사원

겨울은 연인들의 계절이다.
찬바람 덕분에 더욱 꼭 붙어 다닐 수 있는
이 계절에 달달한 연극 한 편을 만나보는 건 어떠한지.
어설픈 연애 초보도 아주 오래된 연인도
다 같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연극 〈러브액츄얼리2〉가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솔로는 100%, 커플은 120% 공감하는 진짜 사랑이야기

연극 〈러브액츄얼리2〉

모든 연인이 겪었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랑이야기

누구나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듯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시간의 흐름에 의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수차례 바뀐다. 연극 〈러브액츄얼리2〉는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 간의 감정변화를 무대 위에서 유쾌하게 풀어 놓는다.
연극에 등장하는 커플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법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공감을 더욱 쉽게 이끌어 낸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오해로 인한 다툼, 화해의 어색함이 연속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사랑에 관한 설명서 같은 연극이다.

복고 열풍을 무대 위에서 만나다

요즘은 복고풍이 대세다.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필두로 90년대 가요 리메이크 앨범 열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 열풍이 거세다. 이런한 분위기는 무대 위에서도 이어지는데, 연극 〈러브액츄얼리2〉는 90년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배경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등장인물들의 의상, 무대,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아련한 90년대를 추억하게 만든다. 또한 공연 중에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들은 아련한 추억의 감동을 더해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배우들은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연인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낸다. 연애 초창기인 100일에는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한창 권태기가 찾아오는 시기인 1,000일에는 얼굴만 보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이 흘러 친구인지 연인인지 아리송한 시기인 10년 커플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애감정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연인 사이에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경험해보았을 만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며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된다.

Tip.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믹 연극 〈러브액츄얼리2〉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연극을 찾는다면 단연 달콤한
로맨틱 코믹 연극을 꼽을 것이다.
무대 위에서 그려지는 알콩달콩
사랑이야기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얼어붙은 연애세포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연극 〈러브액츄얼리2〉는
시작되는 연인에게는 참고서 같은,
오래된 연인에게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일기 같은 로맨틱 코믹 연극이다.
배우들의 실제 경험담을 녹여낸 에피소드는
관객에게 공감백배의 감정을 전해준다.

장소 : 창원 가온아트홀
기간 : 2015.10.16 ~ 2016.01.31
문의 : (평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4시, 7시
(일) 오후 2시, 5시
월요일 휴관
문의 : 070.4168.7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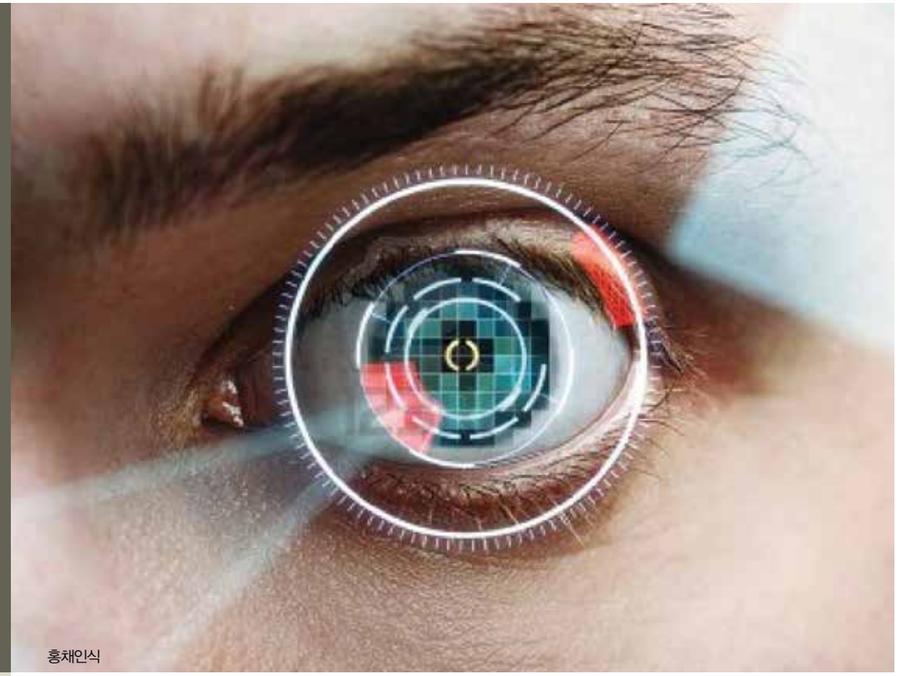
+ mini interview

바쁜 회사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좋은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가 우리와는 동떨어진 소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연극 중에서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던 '사랑은 그 자체 만으로 누군가에겐 가장 큰 원동력이며 힘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랑은 항상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소중한 마음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 **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내 몸이 열쇠’ 생체 인식 기술이 뜬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첩보 액션 영화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한 보안장치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체 인식 기술은 지문과 홍채, 얼굴·음성인식 등의 개인의 신체 특징이나 행동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로 최근엔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날로 높아지는 보안 의식으로 주목을 받으며 점차 종류 면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홍채인식

영화 같은 현실의 생체 인증 세계

첩보액션물의 대명사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은 작전을 펼치는 에단 헌트(톰 크루즈)의 동료가 적의 ‘철통 요새’에 침투하기 위해 걸음걸이 분석 폐쇄회로 TV(CCTV)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첩보 활동 중에 벌이는 요원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 스펙터클한 액션신과 함께 첨단 보안기기를 재치 있게 뚫는 장면은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첩보물 3요소’가 됐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홍채 · 지문 · 음성 모두 복제나 특수 장치를 통해 흉내 내기가 어렵다. 그중에서도 ‘걸음걸이’는 가장 난이도 높은 생체 인증으로 꼽힌다. 걸음걸이는 몸무게와 근육, 뼈의 형태, 골밀도 등의 신체 특성과 생활습관 등에 영향을 받아 저마다 다르므로 이를 똑같이 흉내 내는 건 전 세계 내로라하는 천재 스파이도 불가능하다. 이를 분석하는 CCTV 앞에선 컴퓨터 알고리즘을 건드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이 기술은 FBI(미국 연방수사국)이 신원확인시스템으로 쓰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걸음걸이’로 범인을 추적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4억 원 규모의 R&D(연구 · 개발)을 2016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보안기술 경쟁 점화로 떠오르다

생체 인식 기술이 최근 핫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는 핀테크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을 앞두고 보안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지문 · 홍채보다 더 정교하고 복제도 어려운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들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정맥 인식 기술을 도입한 키오스크(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기기) 무인점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맥 인증은 센서에 한쪽 손을 올려놓으면 적외선 센서가 손바닥 피부 속 정맥의 패턴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정맥 인식의 오차율은 0.0001% 이하로 오차율이 4%인 지문 인식보다 본인 인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맥 인증을 적용하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없이 키오스크 센서에 손바닥만 대면 본인 인증을 거쳐 계좌이체, 송금, 출금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안면근육 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을 키오스크에 적용할 계획이며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인 이리언스와 손잡고 홍채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다양해지는 생체 인식의 세계

앞으로 주먹 생김새나 심장 박동의 특성을 인식하는 인증 서비스도 곧 나올 예정이다. 미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은 캡슐이나 피부 안에 이식한 실리콘칩을 이용해 혈당, 심장 박동 수 등으로 인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체 기술을 구상 중이다.

손가락 정맥 실핏줄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독기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마다 다른 실핏줄 이미지를 암호화한 기술이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온 지문 · 홍채 인식 기술보다 보안 성능이 뛰어나다.

눈과 코, 입과 귀의 생김새와 크기, 간격, 광대뼈 높낮이 등을 등고선 형태로 읽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얼굴 인증 기능을 도입하는 은행도 있다. 하지만 생체 인식 기술도 한계가 있다. 생체 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정보를 지금의 비밀번호 바꾸듯 사용자가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손바닥 정맥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는 키오스크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연하고 있다

To Communicate

아웃도어 포인트

하늘을 향한 나무, 겨울을 속삭이다

이야기를 품은 인제 자작나무 숲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설렘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칙칙하기만 한 회색 도시도 첫눈과 함께 맑게 물든 지 오래. 성큼 다가온 겨울에 움츠러드는 몸과 얼어버린 손발이 따뜻한 집 안으로 폭 숨어버리게 하는 요즘, 발걸음을 이끄는 숲이 있다. 뽀얀 속살을 빛내며 하늘을 향해 굳게 솟아있는 나무, 푹푹 나린 눈밭에서 첫 발자국을 남기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는 강원도 산간 지방에 군락지가 모여 있다.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태백산에 자작나무 군락지가 있음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 길을 찾기 수월하고 산허리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인제 자작나무 숲은 경치를 구경하기 좋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에게 제격이다. 또한 산의 입구인 원대리 산림감시초소에서 숲까지 0.9km의 짧은 거리로 남녀노소가 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끼리 방문하기도 좋다. 자작나무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하지만 바람과 자작나무가 만나 들려주는 소리를 느끼고 있노라면 한 시간이 어느새 훌쩍 넘어가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이름 붙혀진 자작나무는 이름만큼 불이 잘 붙어 산불 통제 기간인 2월 1일~5월 15일, 11월 1일~12월 15일은 입산이 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70만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속삭임, 눈 속에 녹아 버린 듯 고요한 전경에 침묵을 벗 삼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은 아닐까.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당신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자.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자작나무숲 안내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

문의 산림경영팀 033.460.8036

사업관리
하두호 선임매니저

벌써 〈셰플러+원〉이 나온 지 1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셰플러 가족의 소식지로 큰 역할을 해온 〈셰플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셰플러 가족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업무지원 전주
고범준 부장

사람 살아가는 맛과 멋을 물씬 풍기며 달려 온 〈셰플러+원〉. 벌써 10년이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얀 눈 쌓인 대지처럼 우리를 보듬어 사랑과 희망이 담뿍 담긴 이야기로 항상 용기를 주는 멋진 사보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차철환 수석연구원

사보 10주년. 벌써? 10년을 맞이하게 된 사보, 42권의 책, 우리 회사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느낍니다. 사보의 주인은 우리들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보가 되었으면, 회사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들의 아름답고 포근한 향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보 주재기자 및 편집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욱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정기술 열처리 세그먼트
이득노 부장

설렘으로 시작한 우리의 사보 〈셰플러+원〉. 십년이란 세월 동안 사내 · 외 소통의 장으로 멋지게 성장했네요. 함께 만들어간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칭찬을 나누고 싶고 앞으로도 친한 벗처럼 항상 같이하는 사보가 되길 바랍니다.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백정호 차장

〈셰플러+원〉의 창간호에 제 글이 실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부터 독일 Schweinfurt에서 3년간 파견 생활을 할 때, 〈셰플러+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참 위안이 되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셰플러 코리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하며 즐거운 이야기를 사보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기계 사업기획
이상남 BD장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동안 〈셰플러+원〉도 셰플러인들의 다채로운 소식과 읽을거리들로 더욱 풍성하게 변해왔습니다. 〈셰플러+원〉이 앞으로도 쭉 셰플러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해 주시고 임직원들간의 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셰플러인 파이팅!

★
2005
10년 전 사보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셰플러+원〉
10년 동안 쉼 없이 달렸습니다!

2005년 3월 창간 이후 셰플러인들의 열정과 휴식을 모두 담아온 사보 〈셰플러+원〉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셰플러코리아의 오늘과 과거 발자취를 실어 전해준 〈셰플러+원〉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설렘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10주년을 맞아 함께 성장해 온 셰플러 코리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005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꽃이
막 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Vol.1 : 願(소망, 비전),
one(하나), 고유성), 1(베스트)
Vol.2 : 셰플러 그룹, 재도약의 그날
Innovation Day
Vol.3 : 사보 〈FBK+원〉이
〈셰플러+원〉으로 재탄생한 첫 호
Vol.4 : 수많은 임직원들의 증명사진으로
디자인한 인상적인 표지

2006

통합특집호 발간, 열린
마음으로 통합의 한 길로!
Vol.5 : 한 단계 진화된
이름, '셰플러코리아'
Vol.6 : 셰플러인들과 함께
파란 가을 하늘 가득 담았던 가을호

2007

희망의 돛을 올려라
Vol.7 : 다시 시작, 울산 대왕암의 일출을 배
경 새해를 맞이한 셰플러인
Vol.8 : 열정, 조직과 구성원의
열정이 발휘하는 힘
Vol.9 : 대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경우
더욱 절실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Vol.10 : 팀워크, 기업과 팀을
이끌어가는 팀 전체의 분위기와 응집력

2008

시너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키워드
Vol.11 : 자긍심, '사명'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자!
Vol.12 : 글로벌 마인드, 셰플러 DNA를
공유할 수 있었던 여름호
Vol.13 : 시너지, 성공비즈니스의 키워드
'협력'과 '시너지'
Vol.14 : 이노베이션,
혁신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

2009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셰플러인이니까요
Vol.15 : 브랜드 시대,
셰플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정
Vol.16 : 배려,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
Vol.17 : 패기,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Vol.18 : 평생학습, 자기계발은
직장인들의 평생숙제
Vol.19 : 긍정, 나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긍정의 힘

2010

Fun Fun한
셰플러코리아
Vol.20 : 유머, 유머러스한
콘텐츠들이 특별히 가득했던
스무 번째 사보
Vol.21 : 마음 읽기,
오해하지 않는 기술과
이해하는 기술이 담긴 비법
Vol.22 : 비움, 행복과 만나는
소중한 마음가짐
Vol.23 : 시간 관리, 나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지혜

2011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라
Vol.24 : 봄 햇살처럼 빛나는 셰플러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화사했던 봄호
Vol.25 : '밝은 모습 담기
사진공모전'으로 전주 가족들의
유쾌한 모습을 소개했던 여름호
Vol.26 : 셋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 생산1팀'
Vol.27 : 셰플러코리아 매출 1조 원 달성!

2012

고객요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Vol.28 : 고객중심이 화두의
중심에 있었던 2012년 봄
Vol.29 : '소통의 힘' 팀을
건재하게 하는 버팀목
Vol.30 :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넉넉함을 나누었던 가을호
Vol.31 : GM코리아 비즈니스 미팅에서
3개 공장 모두 품질 최우수 협력업체로 선정

2013

따뜻함이 담긴
셰플러인 이야기
Vol.32 : 딸기처럼 싱그러운
커플데이트로 표지를 장식한 봄호의 시작!
Vol.33 : 아빠와 함께,
신나고 행복한 가족 추억 만들기
Vol.34 : 셰플러의
장인정신을 가득 담은 가을호
Vol.35 : 사우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표지,
사랑의 연탄을 함께 나눈 '꼬마천사'

2014

Stay hungry,
Stay foolish
Vol.36 : 안산공장 사우들의
뜻깊은 전주공장 방문
Vol.37 : 색다른 1박2일 체험,
전주공장 사우들의 템플 스테이
Vol.38 : 셰플러가 보여주는
미래 이동수단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한 가을호
Vol.39 : 셰플러의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 쿠킹 클래스

2015

셰플러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다
Vol.40 :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내음을 전했던 봄호
Vol.41 : 외국인 동료와 함께,
시원한 대나무 숲에서 즐긴
한국의 여름
Vol.42 : 빠르게 돌아가는
페달과 함께 길 위에서 휴식을 찾는
사이클 동호회 '두발마'

숫자로 보는 〈셰플러+원〉

43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셰플러가 10년간 발행한 사보의 수는 총 43권입니다. 이번 겨울호는 창간 이래 10주년에 기념되는 제43호로 셰플러 가족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2,928

지금까지 발행된 사보 속에 실린 인물의 수는 평균 2,928명입니다. 약 한 권당 66명의 셰플러인들이 담겨있었던 〈셰플러+원〉. 10년간 사보에 기록된 셰플러인들만 해도 3천 명에 육박!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야기가 실리게 될 〈셰플러+원〉을 기다려 주세요.

0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던 〈셰플러+원〉. 앞으로도 이 기록적인 숫자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2.1

계절마다 발간되고 있는 〈셰플러+원〉의 가로 넓이는 210mm로 지금까지 발간된 사보의 길이를 합치면 무려 12.1m.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키가 173cm인 것을 생각하면 〈셰플러+원〉이 지금까지 세운 높이는 성인 남자 7명에 육박합니다.

2,200,000

〈셰플러+원〉 한 권의 무게는 250g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발행한 사보의 무게를 합치면 2,200,000g으로 약 2.2톤이 됩니다. 2.2톤은 일반 자가용보다도 훨씬 무거운 코끼리만한 무게입니다.

〈셰플러+원〉의 첫 발행일을 기억하십니까? 2005년 3월 18일을 처음으로 발행된 셰플러+원은 10년이 지난 오늘날 2016년 1월 1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첫 호가 발행되어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3956일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956

● 글 편집실 · 사진 강권신

소외된 이웃의 겨울,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녹다

셰플러코리아와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함께한 따뜻한 연탄봉사 현장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아직 겨울을 날 준비를 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연탄이 배달됐다. 셰플러코리아 임직원과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이 연말 연탄봉사에 나섰다.

온정의 열기가 후끈한 연탄봉사

지난 11월 21일, 서울 상도4동 일대에 추위를 녹일 따뜻한 손길이 모였다. 이날 연탄봉사에는 셰플러코리아 임직원과 그의 자녀를 포함해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까지 30여 명이 참여해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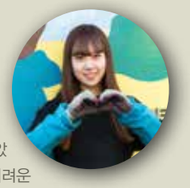
오전 9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봉사자들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다. 봉사 장소에는 까만 연탄과 함께 장갑과 앞치마가 준비되어 있었다. 봉사자들은 봉사에 앞서 쌓여 있는 연탄을 내려줄 팀과 연탄을 나르는 팀, 연탄을 받아 집 안에 쌓는 팀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마침내 준비를 끝낸 봉사자들, 손뼉을 '탁' 치며 기세 좋게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상도동의 소외된 이웃들이 자리한 곳은 손수레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 봉사자들은 손으로 직접 연탄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한 장씩, 나중에는 기본 두 장에 많게는 네댓 장까지 양손에 연탄을 들고 줄줄이 이어지는 발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양볼이 빨갛게 얼어붙는 추위에도 상도4동은 온정의 열기로 후끈했다.

+ mini interview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이기원 수석연구원

연탄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아들 준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연탄봉사를 계기로 나눔과 봉사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성신여대 화학과 3학년
신미애

제 손으로 연탄 100장은 나른 것 같아요. 연탄봉사는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의 작은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니 참 뿌듯합니다. 저희가 배달한 연탄으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검댕이 묻은 웃음꽃이 피다

"아흔 여덟, 아흔 아홉…." 이웃의 집 앞에 차곡차곡 연탄이 쌓일수록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비한 연탄이 줄어들수록 연탄을 받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리란 생각에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듯했다.

이날 부모님을 따라 봉사에 나온 임직원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연탄 나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난생 처음해보는 봉사활동이지만 힘든 기색보다는 기쁜 마음이 앞서는 모양이었다. "한 장 더 주세요." 작은 체구에도 굴하지 않고 양손 가득 연탄을 드는 모습을 부모님은 기특하게 바라보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골목을 오가길 수차례. 얼굴 곳곳에는 어느새 까만 연탄가루가 묻어 있었다. 기존에 오후 1시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 연탄봉사는 봉사자들의 호흡이 잘 맞은 덕분에 두 시간 가까이 일찍 끝이 났다.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니까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검댕이 묻은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몸과 마음이 따뜻했던 연탄봉사는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다. 이웃을 생각한 마음은 그들의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인 연탄들로 남았다. 봉사자들이 내민 온정의 손길로 소외되었던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

● 글 · 사진 이성규

한해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를 코앞에 둔 추운 12월의 어느 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가브리엘(Loureiro Gabriel)과 고광우 사원이 참여한 '글로벌 세플러' 코너의 동행취재차 함께 길을 나섰다. 사무실에서 20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한 북촌한옥마을의 문화체험관에서 김장 및 한복 체험과 붓글씨 쓰기, 전통차 마시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체험관에 도착하니 고즈넉한 한옥의 처마끝에서 울리는 조용한 풍경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다.

고운한복 차려입고 김장하던 날

오미자차? 블루베리?

추운 바람을 뚫고 도착한 체험관에서 따뜻한 온돌방에 발을 들여놓자, 언발이 스르르 녹아 들며 가브리엘과 고광우 사우의 입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지 한 달 정도 되었다는 가브리엘은 한옥을 밖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들어와본 건 처음이라며, 온몸이 녹아 드는 따뜻한 온돌방의 매력에 빠져 감탄사를 연신 쏟아냈다.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함께 오미자차도 나누어 마셨다. 가브리엘은 새콤달콤한 그 맛에 빠져 퇴근길에 오미자차를 사서 가야겠다며 어떤 열매인지 물어보았으나 어려운 학명으로 표기된 오미자를 영어로 설명하고 이해하기엔 포르투갈어와 한국어가 모국어인 둘 사이에 영어란 장벽은 높았고, 셋이 함께 사진을 보면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열매 정도로 합의를 보기로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인 아내를 둔 가브리엘은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한국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한글의 읽고 쓰는법을 배워 알고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그리지 않고, 써내려 가는 모습은 외국어 공부를 늘 작심삼일로 끝내 항상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잠시 돌아보게 했다. 한지에 정성스레 붓글씨로 함께 옮겨 담은 글귀를 들고, 둘은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잠시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겨 새해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마지막 체험은 따뜻한 온돌마루에서 진행된 김장 체험이었다. 요리 좀 해보았다는 가브리엘은 야채를 채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고광우 사우는 엄마손 김치에 익숙한 탓에 김치를 담가보기는 처음이라며 어색한 솜씨로 야채를 다졌다. 김치에 들어가는 갖은 양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자 둘은 열심히 배추 한 포기를 담그기 시작했다. 곱게 겉잎을 싸서 옹기에 올려담은 새김치를 보니, 하얀쌀밥에 한장 쭈욱 찢어올려 먹고 싶은 마음에 군침이 돌았다.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연중 최저기온도 10℃ 안팎을 웃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겨울 날씨는 가브리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나 보다. 미소를 잃지 않고, 즐겁게 촬영을 했지만 다시 온돌방에 들어와 몸을 녹이면서 귀가 얼어 감각이 없어보긴 태어나 처음이었다며 후기를 전했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에 새롭게 합류한 두 참가자가 이곳에서 만들어나갈 추억이 기대된다.

창원 물류센터 준공식

물류센터 내부전경

물류센터 준공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

지난 2월에 기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던 창원 물류센터의 공사가 완료되어 12월 3일 완공식이 진행 되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함께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남부물류센터 김진호 부장의 가이드로 신축한 물류센터를 돌아보며 새롭게 도입한 VNA 차량의 시연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 물류센터의 신축과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VNA 차량은 좁은 통로를 활용해 작업이 용이하고, 최고 17m의 높이에서도 수평,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축한 창원 물류센터의 내부는 고층 랙이 10m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제품 적재시에는 높이가 11m에 달하게 되는데, 새롭게 도입한 VNA 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재물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물류센터의 경우 창원3공장과 함께 위치하여 정문을 통해 화물차량 등이 이동하였으나 신축 공사와 함께 물류센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입구도 새롭게 설치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별도의 입구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계근 시설의 설치를 통해 과적여부의 사전 점검이 가능하며,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상·하역이 가능한 시설도 물류센터 전면에 갖추었습니다.

셰플러코리아는 창원 물류센터의 신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보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물류센터 약 3,000평의 부지는 생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관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의 실현과 물류 흐름의 개선을 통한 물류 원가 절감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VNA 차량

마무리 공사 중인 물류센터 전경

대표이사 이·취임식 및 2016년 시무식

>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 굳은 신념으로
> 2016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서울사무소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 및 2016년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이임사, 재직기념패 전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재헌 前 대표이사는 이임사를 통해 그간 함께 일한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후임자인 이병찬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김 前 대표에게 재직기념패 전달로 그 간의 공로에 보답하였습니다.

곧이어 이병찬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시작하면서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지난 며칠 밤을 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2016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풍요롭고 건강하며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 1조 8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임사 말미에서는 오늘의 가혹한 노력이 내일의 성취와 보람으로 보답 받을 것이며, 우리의 짙은 땀 냄새가 나와 후배들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식적인 식순 종료 후에는 이병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1991년 7월 한화그룹에 입사한 뒤 기획팀, 사업관리, 구매, SCM 등의 부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 울 사 무 소

EVERGREEN 서울지역 봉사활동

10월 17일, EVERGREEN 서울지역 봉사단은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점토를 활용해 타악기인 마라카스 꾸미기 활동을 진행했다.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꾸민 마라카스를 관람하며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2월 19일에는 성모보호작업장의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성탄절 파티를 열었다. 봉사 단원들은 다함께 지적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성탄절 트리 꾸미기를 진행했으며, 산타 복장을 한 뒤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들을 나누어주었다.

오토모티브 산업 박람회(KOAA) 참가

10월 18일~12월 20일, 셰플러 오토모티브 애프터 마켓(SAAM)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15년 KOAA쇼에 참가하였다. SAAM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KBC 브랜드를 포함하여 5개 브랜드(Luk, INA, FAG, Ruville, KBC)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하며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각종 부품에 대한 시연도 함께 진행하였다. 4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16,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e-스포츠 동호회 모임

11월 18일, 서울사무소 e-스포츠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 근처의 PC방에 모인 동호회원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들을 즐겼다. 연령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e-스포츠 동호회는 매년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만큼 인기 동호회로 자리 잡고 있다.

축구동호회 4/4분기 모임

11월 12일, 서울사무소 인근의 야외 풋살장에서 동호회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동호회원이 참석하여 서울사무소 인근의 풋살장에서 함께 경기를 즐기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올해 축구동호회의 마지막 모임을 마무리했다.

서울사무소 부서단위 배식봉사

서울사무소는 매달 부서단위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23일에는 샤시시스템, 11월 27일에는 커뮤니케이션&마케팅/전략기획/감사팀이 배식봉사에 참가했으며, 2015년 마지막 배식봉사였던 12월 28일에는 정보시스템이 배식봉사에 참가하여 종로노인복지관의 독거 노인분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2015년 성희롱 예방교육

12월 3일, 지난 5월에 실시된 서울사무소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임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으로 1차 교육 불참자 70여 명이 참가하여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멘토링 클로징 워크숍

12월 22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5년도 멘토링 활동이 끝났다. 전국 사업장에서 서울사무소 대회의실로 모인 멘토와 멘티들은 1년간 활동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행사로 1일 미션을 멘토 그룹별로 수행하고 돌아와 감상평을 나누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멘토링 활동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매 워크숍 실시

12월 11일,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공장에서 근무중인 구매 부서 30여 명의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한 부서원들은 함께 1년간의 업무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더 의미있는 2016년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하였다. 회의 후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즐기며, 한해를 보내는 소감을 나누었다.

셰플러코리아 종무식 실시

12월 31일, 한해 업무의 종료를 알리는 종무식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는 임원진의 송년 인사와 함께 사무실 공간에서 자유롭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 먹는 것으로 종무식을 마무리했다.

대학생봉사단 EVERGREEN 해단식

12월 마지막 활동을 끝으로, 서울, 창원 및 전주지역의 2015년 대학생 봉사활동이 모두 끝이 났다. 각 지역별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된 해단식을 통해 봉사단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 대학생봉사단 활동은 3기가 마무리 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에 3개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될 4기 봉사단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 주 공 장

전주공장 노동조합 지부장배 체육대회

10월 18일, 전주공장에서 노동조합 지부장배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 800여 명이 함께 모여 체육활동과 가족행사를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주공장 산행

10월 19일, 전주공장 직원들이 순창 강천사로 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산행에 참가한 300여 명의 임직원은 모두 함께 완연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붉게 물든 강천산의 단풍을 즐겼다. 오랜만에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한 이날 산행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EVERGREEN 전주지역 봉사활동

11월 28일, EVERGREEN 전주지역 봉사단이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동절기 간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아동센터 대청소도 실시하였다.

음악동호회 봉사활동

11월 28일, 전주공장 음악동호회 회원들이 전주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인 소화진달네에 방문하였다. 음악동호회 회원들의 연주를 시작으로 이날 모인 30여 명의 소화진달네 식구들이 직접 노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소화진달네 식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어서 보다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연탄나눔 봉사활동

12월 13일, 업무지원 전주 부서원 8명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석하여 따뜻한 겨울 만들기에 나섰다.
업무지원 전주는 매년 참가하고 있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올해에는 3가구에 총 9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업무지원 전주는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전주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해줄 계획이다.

창 원 공 장

EVERGREEN 창원지역 봉사활동

12월 5일, EVERGREEN 창원지역 12월 5일(토)에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우 및중부경찰서 자원봉사단과 함께 안민동 벽화 그리기 봉사 활동을 실시 하였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으로 거주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창원공장 팀 리더 평가

12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창원공장 팀 리더 평가가 진행되었다. 현장 관리의 새로운 방법 중 하나로 2016년 전 공장에 적용될 이번 팀 리더 평가는 창원공장 전체 시행을 위한 평가로 1차 파일럿 대상자로 8명이 팀 리더에 임명되었으며, 이번 평가를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추가로 53명의 팀 리더가 임명될 예정이다.

2015년 창원지역 장학사업 후원회 장학금 전달

12월 21일, 창원지역 장학사업 후원회(공동위원장:이근삼공장장, 장준영위원장)가 주관하는 2015년 장학금 전달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플러코리아 창원지역 장학사업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매년 창원지역 내 초등학생 및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불우한 환경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학생들을 추천받아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 40명과 공업계 고등학생 30명에게 총 6천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총 9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11월 21일과 12월 10일, 2회에 걸쳐 창원 관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개선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창원공장 임직원과 관내 봉사활동 단체들이 참가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와 함께 불필요 물품에 대한 이동 및 청소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노사 간부 워크숍

12월 3일, 안산공장 교육장에서 노사간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말을 맞아 2015년 실적 발표와 함께 2016년 사업계획을 공유하였다. 워크숍에는 올해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안 산 공 장

2015년 에코경영 워크숍 참가

10월 29일, 일반인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에코경영(Eco-Management & Audit System) 워크숍에 하준호 부장(업무지원 안산)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셰플러코리아는 회사소개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에코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셰플러코리아가 에코경영의 선두주자이자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5. 8

세무
배병렬 | 17일
장인상

직접자재구매
천영석 | 25일
장인상

HR Service B
박은영 | 29일
본인결혼

2015. 9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임주혁 | 7일
모친회갑

HR서비스 B
박은영 | 12일
부친회갑

2015. 10

산업기계 해외 영업
이선종 | 1일
장모회갑

회계
김옥중 | 1일
장인회갑

산업기계 중부 직납 영업
이상남 | 11일
빙부상

산업기계 남부 직납 영업
신병주 | 15일
장모회갑

남부물류센터
최준우 | 16일
장모상

급여 및 HR 서비스
정은선 | 21일
시부상

정보시스템
곽병관 | 30일
모친회갑

2015. 11

Asia Pacific Finance
BAUM, STEFAN | 4일
장모상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이명진 | 5일
시모회갑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
최보경 | 9일
시모회갑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민유정 | 10일
부친회갑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이명진 | 20일
시부회갑

2016. 1

회계
이은혜 | 24일
본인결혼

창원공장

2015. 9

업무지원 창원
하건수 | 11일
부친회갑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경완 | 11일
부친상

선삭 세그먼트
김금술 | 12일
자녀결혼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손윤호 | 14일
장인상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경윤 | 16일
부친회갑

샬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김성은 | 18일
본인결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갈철호 | 27일
조부상

선삭 세그먼트
임성식 | 30일
부친상

2015. 10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차회 | 3일
자녀결혼

치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 MU
조영국 | 6일
부친상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강경만 | 7일
부친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한수 | 8일
모친회갑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심성섭 | 10일
부친상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심정한 | 11일
본인결혼

베어링부품 MU
김미점 | 17일
모친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광연 | 17일
장모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하혜성 | 22일
조모상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박광수 | 23일
모친상

샬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김푸름 | 23일
부친회갑

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준호 | 26일
조부상

선삭 세그먼트
임성식 | 29일
모친상

샬비보전 창원 볼베어링 MU
이강업 | 30일
장모회갑

2015. 11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배성현 | 1일
본인결혼

선삭 세그먼트
이규일 | 8일
장인상

샬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백승택 | 10일
모친상

업무지원 창원
신말임 | 12일
시모회갑

선삭 세그먼트
권태경 | 14일
부친회갑

품질보증 창원
손강우 | 17일
부친상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손강수 | 17일
부친상

단조 세그먼트
손강재 | 17일
부친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하홍길 | 20일
부친상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문성우 | 22일
본인결혼

품질보증 창원
이석록 | 22일
자녀결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조원형 | 28일
자녀결혼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조명식 | 28일
본인결혼

샬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송영수 | 29일
본인결혼

2015. 12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석영균 | 6일
자녀결혼

생산계획 볼베어링 MU
조종도 | 11일
부친회갑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임규일 | 12일
본인결혼

전주공장

2015. 9

활베어링 세그먼트
노 일 | 14일
자녀출산

2015. 10

열처리세그먼트
권장호 | 5일
본인결혼

볼베어링 세그먼트
지동훈 | 8일
장모회갑

공정기술 전주
박형민 | 15일
조모상

공정기술 전주
이장래 | 16일
자녀결혼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진성 | 26일
모친상

2015. 11

활베어링 세그먼트
채현석 | 2일
장모상

활베어링 세그먼트
한동재 | 2일
본인결혼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이장희 | 7일
부친상

활베어링 세그먼트
이대윤 | 9일
본인결혼

볼베어링 세그먼트
임동신 | 12일
자녀출산

활베어링 세그먼트
정동우 | 16일
본인결혼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준혁 | 27일
장모회갑

열처리세그먼트
정중호 | 28일
본인결혼

안산공장

2015. 10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이경천 | 4일
모친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창휘 | 10일
모친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영철 | 18일
본인결혼

엔진 콤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최혜윤 | 22일
조모상

2015. 11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조명현 | 5일
부친회갑

공정기술 엔진부품 세그먼트
안상철 | 8일
본인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형찬 | 14일
본인결혼

공정기술 안산
정종현 | 14일
조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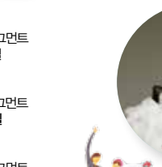
품질보증 안산
최원석 | 17일
모친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박기현 | 21일
본인결혼

2015. 12

품질보증 안산
최홍선 | 12일
본인결혼

품질보증 안산
김경미 | 20일
본인결혼



연구소

2015. 9

샤시 & 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김한규 | 6일
본인결혼

샤시 & 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남윤건 | 19일
모친회갑

전용기계팀
이창훈 | 27일
모친회갑

2015. 10

전용기계팀
김중휘 | 3일
본인 결혼

제품기술팀
서민우 | 24일
본인 결혼

2015. 11

제품기술팀
안희훈 | 13일
장인회갑

제품기술팀
최승호 | 17일
조모상